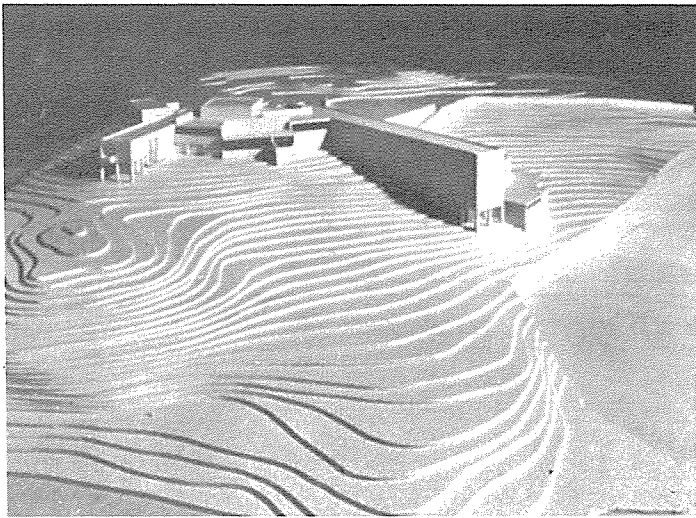


건축을 구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元 正 洙 — 仁荷大學校 建築科教授



* 건축에서 무엇들을 바라는가?

건축은 百年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하여 2083년 까지는 제 구실을 하거나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셈이다.

얼마 전에 국내 어떤 현상응모작품 선정과정에서 1,000년을 내다보는 우수한 작품이 없어 한국 건축가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몹시 안타하였다는 후문이 들린다. 百年이건 千年이건 數的인 尺度는 단순히 未來에 대한 良心과 責任을 보다 密度를 強調하는 뜻인 것만은 충분히 양해가 되나,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재에 당면한 과제는 옳게 풀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고 반추하여 보게 된다.

건축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건축을 요구하는 일반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미래에 기대하는 것? 현재에 만족하는 것? 과거의 향수를 달래주는 것? 또, 건축가와 일반사람들의 요구와 생각이 일치하는 것인지? 전혀 판전을 부리며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백년·천년 앞을 본다, 못본다, 봤다, 어디 그게 천년짜리냐? 누가 그때까지 살아서 증인이 되어 심판을 내릴 것이며, 진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국내 현대건축의 불실구조는 곧 불신의 응어리이며, 이는 곧 천년이 흘러내려와도 위용과 기능을 유지하는 유럽의 "성당"에 비하면 무엇이 건축인지 곧 알아차릴 만한 건

축가들이요! 왜 그것이 오랜 세월을 견디는지 아는가? "돌(石)"도 모르는가? 그래도 건축가의 긍지를 갖고 "돌"을 사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한국 未來학회가 주최한 한국의 90년대 미래창조 "심포지움"에서 한국인 思考문제를 다음과 같이 評한 것을 보며 自省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의 크고 많은 恨 중에 가난에 대한 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目的偏向的인 思考方式, 자기중심의 我執은 실상 너무 가난한 절대상황에서 오래 쌓여진 反射的인 堆積物일 것이다. 이는 또한 가난한 나라와 풍요한 나라 사이에 만나게 됨은 消費주의적 경제 優位를 두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며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경제적 動物이 되며 審美的인 道德的인 가치는 뒷전에 밀린다. 따라서 건축의 觀點도 物質的인 好화도를 중요시하며 만족하는 경향이 짙다.」라는 견해이다.

* 핑계와 탓

설계사무실들이 도면납품에 쫓겨 밤샘이 茶飯事인데 이를 위협하는 天敵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기있는 TV스포츠 중계방송이다. 그런데 언제나 느끼는 점은 해설자의 설명내용이다. 어딜보나 승산이 없는데도 게임은 상대적이거나 의외성을 기대하게 유도한다. 패하면 핑계와 탓이 뒤늦게 쏟아지는데 좀처럼 다음 경기나 스포츠 행정에 반영되어 시정 발전되는 기미란 찾아보기가 몹시 어렵다.

그렇다고 스포츠 중계처럼 건축작품 중계를 대중화 하자는 주장은 아니나 국내건축의 수준이나 질적인 내용에 대한 일반대중의 안목과 비평은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지에 있다.

종래 건축창작과정은 건축가의 양식을 토대로 한 直觀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왔으나 다양한 변화, 계획요소의 증가는 개인두뇌의 판단과 주관에 신뢰하려들지 않게 되었다.

건축가 스스로 계획과정의 효율적 방법을 개발 또는 도입을 하여 이에 대처하는 추세는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도리어 계획과정의 공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는 책임전가 내지는 책임회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실례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기까지 한다.

건축주의 눈치가 韓式을 원하는 듯 하니 한식이 가장 우수하도록 평가를 유도하여 설계가 조속히 마무리 되는 사례는 설계자로서는 극히 편리하다.

건축가, 일반시민이 모두 만족한 결과를 바란다.

건축가는 바라는 목표를 확인하고 代案修正을 되풀이 하여 내용을 다듬어 나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도 실제 완공된 것이 철거되거나 쓸모가 변질되는,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代案을 수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었다, 헐었다, 그랬다, 지웠다, 일관성이 결여됐던 미래예측이 부실했던 모든 것은 전문가의 잘못이게 마련이다. 바로 지적하여 건

建築家は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건축을 요구하는 일반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누가 그때까지 살아서 증인이 되어 심판을 내릴 것이며,

진짜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축인의 책임으로 화살이 날아들며 실망만 두터워지는 수난도 병행된다.

*地球上의 垜地限界

건축가가 작품제작에 몰두하는 無我境은 그 어느 것에 비할 바 없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魔力인데 때로는 意志를 쯤먹는 失意를 느낄 때가 점점 많아지는 동료들을 자주 보게 된다.

건축가란 무엇인가?

地上에 건축을 생각하고 창조한다.

달리 둘러 붙이면 인간을 위한 환경을 창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등등.

해의나들이가 잦아지면서 호텔에 묵는 경우보다 장거리 비행시간 동안 백인 또는 흑인, 여자와 아무하고나 어색하지 않게 여객기 옆자리에서 동침하게 되는 국제생활경력이 점점 많아진다. 여객기 내부를 거실로 상상도 하여보고, 화장실도 개조할 수 없나, 잡념도 가져 보았다. 넓은 바다의 船上의 空間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地上에 기초를 박고 있는 것 이외는 건축가와 무관하다.

그러면 건축가가 뛰어 놀 수 있는 場이 無限한가. 이는 곧 地球陸地の 地表面을 두고 말하며 可用垜地가 과연 얼마 남았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地球의 총 陸地面적은 357억 에이커, 그 중 경작지는 35억 에이커, 현재 地球人口는 40억을 넘어서는 단계에 있으므로 1인당 1에이커의 배당을 받는 셈인데, 상당한 未開發國家의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심각한 국제식량문제의 고질이다. 현대기술로 현재의 두배의 경작지를 개발할 수 있고, 장차 地球定員을 70~80억을 추산하고 있다. UN의 추정대로 2,000년에는 54억에서 70억까지의 人口增加를 予測하고 있다.

먼저 거론된 천년을 내다보라는 目標에 異議를 제시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결코 비판적인 感傷을 노래하기 위

해서가 아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는 地球가 수용할 수 있는 太陽에너지와 바다까지 통털어 식량을 증산하면 地球定員은 363억일 것이라는 限界를 산출한 사람이 있다. 지금의 10배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때 건축은 지금의 건축허가방식이 과연 그대로 적용되며 건축가의 역할도 살아 있을까?

얼마 전 宇宙비행선 “첼린저”호가 발사비행에 성공했다. 이의 試圖은 人工宇宙都市(Space Colony)의 現實을 實證한다. 2,000년대 건설회사들은 宇宙유람하며 宇宙都市建設用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한국이 受注1위가 되어야 할텐데!

地球壽命에 비관적인 과학정보가 자주 쏟아진다. 하늘에서 비(雨)가 와도 죽음의 비다. 공장매연공해물로 湖水·하천이 죽음의 水質로 되어진 곳이 北部유럽, 美洲에 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심각하지 않은 듯하나 藥物오염도 매일 生態과피를 위협하고 있으니 都市의 最大敵은 水質의 파괴에 있는 만큼 透視圖만 뵈고 앉아 있을 安易한 時代는 아니다. 유럽여행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고 부러웠던 것은 건물아닌 都市地下의 下水道의 완벽한 구조를 본 순간이었다. 그만큼 地下都市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유럽의 歷史는 商業主義, 産業의 발달과 都市人口集中 현상은 不潔과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보통 都市人口의 1/3의 人口가 死亡한 경험에서 위생환경개선과 都市구조가 완성되었는데 東洋은 뒤늦게 都市팽창과 전염병 발생 문제는 都市施設의 해결보다 藥物에방방식으로 해결에 대처하다 보니 一般시민 의식구조는 조금도 선진국의 환경시설의 洗鍊된 청결성을 피부로 共感할 수 없는 격차가 크다.

炭酸가스의 대기오염은 2,000년에는 틀림없이 현재의 2배가 된다고 예언하며 美蘇의 核무기 경쟁은 地球가 걸

레가 되고도 충분한 기준을 벌써 넘어섰다니 그들의 마음가짐에 運을 걸고 사는 身勢가 된 듯하다.

* 한국의 垜地조건

지난 가을 단풍連休에 雪岳山人波에 끼어든 경험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새로 建設된 “明星콘도”라는 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는 순간 모두 서울의 아파트단지를 송두리채 옮겨다 놓은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韓半島는 이름하여 서울특별國 강원區 설악洞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모두 서울에서 산다는 기분은 서울集中 현상도 무마하게 되고….

韓半島의 地勢는 山地가 67%가 차지하고 나머지 平地에 경작지, 建築可用地로 하여 沙漠에서 물을 아끼듯 垜地에 建築計劃을 한다는 것은 一發必中이어야 하고 習作이 될 수가 없는 宿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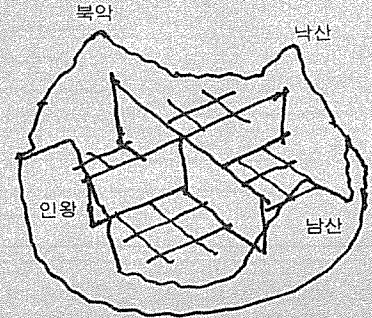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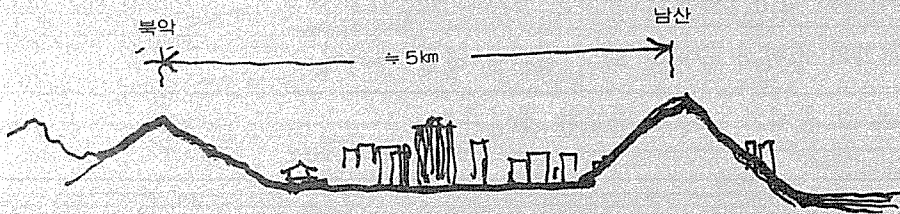
全國 30余 大學에서 建築人은 배출되고 國內 垜地규모는 限定되어 있으니, 일감이 無限할 수 있을까? 人口增加와 병행하여 영업이 繁盛하는 醫師와 비유하면 건축계는 可히 한정된 목숨이라는 생각이 든다.

日本の 建設實績은 敗戰後 國民住宅의 需要目標은 달성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計劃된 목표는 住居환경의 質的 개선에 두고 있다. 31.4%에 불과한 水洗式시설, 日照해택이 3시간 미만에 드는 12.5%의 不良환경 개선, 不良구조 개선을 要하는 42.9% 등, 이를테면 中國 秦始皇이 萬里長城을 쌓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일거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妙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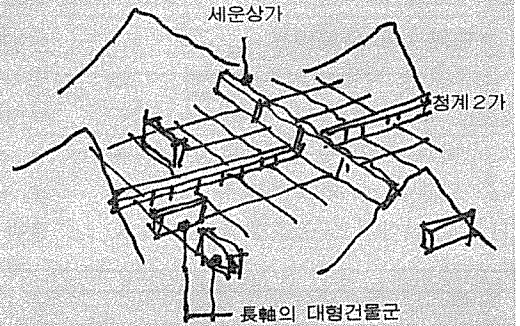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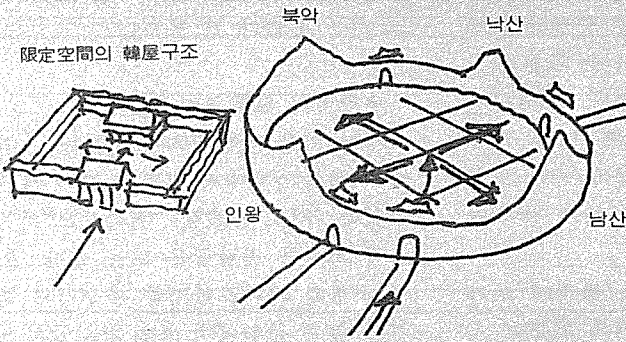
그렇다면 한국의 건축가는 아직도 住宅, 産業施設 등 많은 作業량과 지금까지의 不實施設 환경의 質的 개선, 그리고 國際의 선망의 대상인 '86·'88 올림픽경기를 치러야 할 한국건축가는 세계 建築家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일에 파묻히는 幸運으로 예상된다.

서울 都心の 地勢와 現狀



分化되어가는 限定都市공간

限定空間의 轉屋구조



*건축조형 品位의 평가기준

서울 장안의 모습이 불과 최근 10년 사이에 최고 38층의 롯데호텔을 비롯하여 11층 이상 건물이 2백25동 이상 들어섰다고 한다.

서울도시의 인상을 한마디로 대변한다면 무엇인가 하고 시민에게 묻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일부 여론조사 실시결과에서 제일 높은 반응이 "인구과밀"·"빌딩 숲"·"무질서"·"교통지옥"이란 인상이 가장 많았고 건물에 대한 인상은 "남대문"·"고궁"·"남산타워" 등이며 관심을 보인 건축은 "문예진흥원"·"세종문화회관"·"롯데" 등 반응을 보이는 여론조사를 통한 의식경향을 조사하여 보았다.

이는 계속 연구할 분야이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대부분 시각적인 대조가 두드러진 대상이 기억되기 쉽다는 것과 자연환경과의 관련이 깊은 점에 호감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일반인이 갈망하는 건축을 표현한 용어를 몇가지 열거하면, "넓은" 주거공간 또는 정원, "확 트인 조망"·"단조로움을 피한 건축"·"정서생활"·"情"이 가는 등, 또 "자연스러워야 한다"·"효율적"·"최대한 편리"·"편의" 등등 꿈이 참 많은데 얼만큼 현실에서, 또 어디에서 찾았는가, 또 찾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렇게 삶에 대한, 마음 속으로 바

라는 환경은 순수한데 과연 건축물을 빚어내는 환경은 원하는 기대대로 만족한 것을 만들고 있는가?

한국의 건축은 지금으로부터 백년 전에 外國公館·商社들 그리고 기독교 教會·聖堂 등의 벽돌, 石造의 洋館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불과 1세기, 그리고 해방 후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 都市像과 全國土의 양상을 뒤바꾸어 놓은 결과는 우리의 기대 이상인가?

서로 다른 文化가 化合하는 과정은 化學變化의 實驗보다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다. 分子量이나 試藥의 變數는 予測을 不許한다. "큐리" 부인의 "라듐" 발견은 교과서 속의 浪漫이며, 文化의 變化는 끝없는 過程일 뿐이다.

회람의 "파르테논"이 아름답다고 共感할 수 있는 結實을 얻기까지 많은 같은 "모델"을 반복하여 다듬었다면 로마는 형식은 장식과 수단일 뿐 투기장·공동탕, 도시의 화려한 분수대 등을 욕망을 채우는 기능을 만들어내는데 흥미를 더 가졌었다.

1898년 서울 진고개 언덕에 45m 높이의 보족당 벽돌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만여명이 구름같이 모여 들었고 그 위용은 산을 자를듯 했다고 당시 목격담에 기록되어 있다.

"앙드레 말로"는 東西洋의 차이를, 開化期를 맞이한 일본은 西洋을 연구하고 잘알고 있는데 반해 西洋은 동

양을 잘 모르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는데, 이 점은 바로 自主的 文化創造 없이 西洋 것에 의존모방하는 東洋의 처지를 꼬집는 말인 듯 싶다.

하기야 아무도 못말리는 답답한 고질 풍토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무엇을 했다면 너도 나도 휩쓰는 유행의 고질병.

이제 나도, 우리는, 서울은, 한국은, 무엇이며 어떻게 뻗어나가야 할까?

*서울 都市의 運勢

미국의 뉴욕이 세계의 서울과 같은 선망의 도시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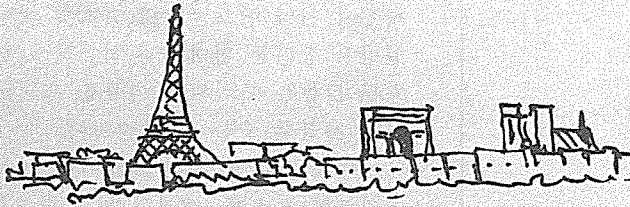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무섭고 어지러운 곳이 있다는데 실망이 커진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넘치고 멋있는 곳도 또 이곳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서울의 매력은 무엇이며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왜 이곳이 서울이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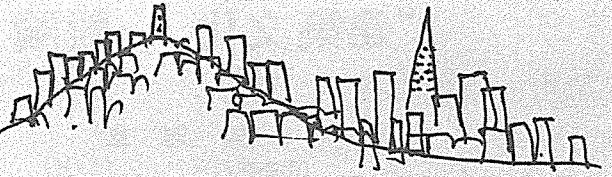
李氏王朝의 永遠한 王勢道를 누리는데 가장 알맞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이 가장 뚜렷한 理由이다.

한때 漢陽都邑으로 옮길 때 神僧 無學이 태조에게 아뢰어 「인왕산을 배경으로 白岳과 南山을 左靑龍右白虎」로 하도록 진언하였으나 鄭道傳이 가로채 가로되 「옛부터 帝王은 南向으로 앉아 정사를 하며 東向은 없다」하여 반대하였는데 이에 無學이 「내 말

外國都市의 특성



균형을 유지하는 PARIS



頂上을 중심으로한 경사면의 SAN FRANCISCO



평탄한 水平面上의 고층군의 N·Y



ACROPOUS를 中心으로 한 ATHENE

을 듣지 않으면 200년 뒤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 하였으니 그게 바로 200년째 선조 임진년 都城이 곤욕을 겪은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서울 都市의 軸이 東西로 결정이 되어 내려왔다면 현재 도로의 形態도 다르고 교통체증도 완화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잡념도 가져본다.

이제는 王都가 아니니 四大門 성곽의 博物都市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고 이미 2·30층이 대접에 물이 넘쳐 흐르듯 팍 들어찬 느낌이니 그대로 뻘을대로, 우거질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지. 불안하다는 일반시민의 여론을 많이 듣게 된다.

교통마비증세의 都市, 地下鐵이 완공되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 우선 희망을 갖고 지하철 공사장에 빠져서 목숨이 다쳐도 모두 내일을 믿고 참아주는 시민의 인내심이 세계적으로 으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신기한 현상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하나 든다.

車들을 잘 빠지라고 아까운 집들을 때려 부수고 車道를 滑走路만큼 잘해 주었더니 車가 더안빠지는 골치거리.

옛날에 가까운 仁川에 가려면 짙신 몇짝 짊어지고 한나절 걸리는데 요즘은 혼한 “포니” 한대로 전국을 누비니 平地가 모두 자동차 운동장이 되어도 모자랄 지경이며 3년 뒤에 地下鐵이 四通八達이니 롯데 1번가에

몰렸다 하면 콩나물 시루일 것이 뻔한데, 벌써부터 공연한 걱정일까?

*서울 四大門 안의 地勢와 宿命

땅의 形狀이 北으로 北岳山, 南으로 南山, 東으로 駱山, 西로 仁旺山으로 둘러싸인 地勢는 求心性이 강한 아늑함의 安定을 느끼는 盆地임을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거기에 한꺼풀 강조하여 山마루를 타고 城을 두르고 四大門을 세웠다.

東西南北, 山上 頂點間의 거리는 불과 5km도 채 못된다. 그러니까 安國洞에서 퇴계로까지 폭이라야 2km도 못되는 셈인데 이 틈바구니에 4천년 동안 쌓여진 恨을 풀기 위한 先進國의 발돋움을 하는 이 時点에서 이때를 맞이한 우리 建築家들은 名作을 빚어내기에 커다란 짐을 지게 되었다. 街路에 즐비한 건물을 아담하고 아기자기하게 할까? 區劃마다 한덩어리로 크게 묶어 고쳐볼까? 高層으로 올려볼까? 四大門 안은 古都의 香氣를 보존하기 위해 低層으로 하거나 아니면 全面 억제할까?

이미 벌써 허가해 주고 지어버린 것은 그냥 눈감아 주고 다 이지경을 해 놓고 지금부터 마감을 하면 내 財産은 어이하라고, 참 어렵고 힘들겠다는 것이 이해가 간다. 都心內로 아침 출근을 하는 경우 반포대교에서부터 市内入場 萬員謝禮라는 푸대접을 받

은지 이미 오래다. 서울 都心의 限定된 面積과 人間知覺으로 감지할 수 있는 快適限界를 넘어서도록 과밀하면 心理的인 安定은 파괴된다.

옛 漢陽都邑은 南大門을 들어서면 안마당에 들어선 분위기를 주고 경복궁이 中心을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南大門 안을 들어서기도 어렵거니와 들어서도 절벽에 갇혀지고 우물 속에 빠졌다 기어나오는 압박감을 크게 느낀다.

여기에 加勢하여 동서남북으로 貫通하는 通過기능의 主道路를 都心部에 유도하였다면 宿命的으로 地勢가 奧地이며 靜的이어야 할 곳은 영영 救濟할 方案이 무엇일까?

사람이면 모두가 사람인가, 사람다와야 사람이지. 집이 많다고 都市인가?

서울이 타고난 品位와 가치는 세계 어느 곳과 비할 바 없는 아름다운 骨格을 안고 있다. 人口증가, 交通체증이 다급하니 進路제 처방의 物理的 해결로 運命의 고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都心內 大型건물을 계획하는 기회를 처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自然을 되살려 주어야겠다는 생각. BUILDING IN THE GARDEN.